

광주 수능 4개 영역 1등급 29명

각 영역별 1등급도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전남 출신 서울대 최종합격자 작년보다 늘 듯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광주·전남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수험생 중 언어·수리·외국어·탐구(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 모두 1

등급을 받은 학생은 총 29명으로 0.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0.11%보다 0.05% 높은 수치다.

각 영역별 1등급 학생들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언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5.81%(이하 전국 평균 4.31%) ▲수리영역 7.98%(4.16%)

▲수리나영역 5.45%(4.16%) ▲외국어영역 5.36%(4.32%) ▲사회탐구영역 6.31%(4.08~5.95%) ▲과학탐구영역 6.98%(4.07~6.27%) 등으로 전 과목에서 1등급을 얻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실력 광주'를 입증했다.



“성적표 받기 떨려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7일 오전 고3 수험생들의 화기奕기였다. 광주 대성여고 3학년 여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남경주기자 mnj@kwangju.co.kr

총기 탈취범 추가범행 비상

해병대 사망자는 광주 남부대생

지난 6일 오후 5시55분쯤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소황산도 인근 도로에서 30대 고향인 해안초소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고향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해병 2사단 소속 이재혁(20) 병장과 박영철(20)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 일병은 이날 밤 숨졌다.

숨진 박 일병은 광주시 남부대학교 경찰행정과 학생으로 고향의 흥기에 일곱 차례나 찔리면서도 총기를 블집고 저항하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고향은 병사들을 덮친 뒤 다시 유턴해 이 병장에게 “다친 데 없느냐”고 접근, 갑자기 주머니에서 흥기를 꺼내들고 이 병장의 팔과 허벅지, 입 언저리 등 5곳을 찔렀다.

이 과정에서 이 병장의 K-2 소총 개머리판에 이마를 맞아 피를 흘린 고향은 총기를 뺏으려다 실패하고 도로 아래 벤트로 떨어진 박 일병에게다가 옆구리 등을 치르고 수류탄 1발, 유탄 6발, 실탄 75발 등이 들어있는 탄통과 K-2 소총 1정을 빼앗은 뒤 다시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용의자량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불에 탄 체 발견됐으나 고향은 검거되지 않았다.

강화경찰서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린 군·경은 용의자가 부대사정에 밝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현장 및 도주로 방면 CCTV, 기지국통신을 분석해 수사를 벌이며 범인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나들이하기 좋아요

광주·전남 맑고 포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나들이하기에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8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 1도로 전날보다 3~4도가량 낮아지며

서 춥겠지만, 낮 기온은 5~9도로 예상돼 전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해안과 산간지방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휴일인 9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낮 기온이 7~11도까지 올라 주위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포외고 합격 취소 44명

법원, 임시 합격 인정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을 통해 “재판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 종로법학원 출신으로 지난 10월 30일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합격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오는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누그러진 추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12월 8일 (음 10월 29일) 날씨

▶전국날씨

법원, 임시 합격 인정



광주 온 제주감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감귤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 ‘제주감귤 대도시 순회 무료 시식회’가 7일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과 학생들이

/남경주기자 mnj@kwangju.co.kr

광주 50억원대 계파동

펀드 열풍에 계원 출자 계주 잠적…500여명 피해

펀드 열풍에 밀려 광주에 수십억 원대의 계파동이 났다.

가정주부인 김모(여·45·광주시 남구 주월동)씨 등 8명은 ‘남구 진월동에 사는 이모(여·49)씨가 빚돈 2억여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에 따르면 교회 신도와 동네 지인 등의 소

개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나찰계’에 가입, 1인당 최고 2천만원의 빵돈을 냈으나 계주 이씨가 지난 10월 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6일 현재 3건이나 피해자 수와 금액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운영한 계가 30

내년 설 연휴 열차표 12~13일 예매

내년 설(2월7일) 연휴 기간 중 열차 승차권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예매된다.

예매는 특별수송기간인 내년 2월5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과 역 창구를 통해 판매된다. 12일에는 경부·중부·경부·대구·경전·동해남부선,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영동·태백·경춘선에 대한 예매를 한다.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기각했다.

(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는 오전 10시부터 점오까지 2시간씩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1인당 구입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

예약 승차권 결제는 13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22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개가 넘고 계원도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이 5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집사인 이씨는 빵돈으로 사채 빚 등을 막아오다가 최근 높은 펀드 수익률로 계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파트 단지 소방호스

구리 관창 또 도난

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소방호스 구리 관창(管槍·nozzle) 등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문흥동 J아파트 단지 내에서 구리 관창 60개와 연결송수관 32개가 분실됐다. 시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시내 각 소방서에 오는 12일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의 소화전을 일제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26개 아파트에서 2천45개(4천만원 상당)의 관창이 도난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수리 ‘가’ 2등급 무더기 발생

고3교실 등급제 논란

2008학년도 수리 가형 1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가 만점에 가까운 98점에 이른다는 입

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나이도 문제와 더불어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날 수리 가형 1등급 비율이 4.16%로 발표됐고 이 같은 1등급 비율은 커트라인인 2점짜리 1분항을 틀린 98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 가 1등급은 결국 만점을 받거나 비교적 쉬운 2점짜리 문항 1개를

실수로 틀린 학생에게 해당된다 는 것이다.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1분항을 틀린 학생은 모두 2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리 가 영역 1등급 비율은 표준 비율(4.16%)에 거의 들어맞았으나 2등급 비율이 표준 비율(7%)을 3%포인트 이상 벗어난 10.08%에 달해 2등급을 받은 자에게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리 가 영역 3등급 비율은 9.55%로 표준 비율(12%)에 비해 2% 이상 벗어났다. 수리 가 2등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오히려 3등급 비율이 2등급 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은 난

수리 ‘가’ 2등급 무더기 발생

고3교실 등급제 논란

2008학년도 수리 가형 1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가 만점에 가까운 98점에 이른다는 입

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나이도 문제와 더불어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7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날 수리 가형 1등급 비율이 4.16%로 발표됐고 이 같은 1등급 비율은 커트라인인 2점짜리 1분항을 틀린 98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리 가 1등급은 결국 만점을 받거나 비교적 쉬운 2점짜리 문항 1개를

실수로 틀린 학생에게 해당된다 는 것이다. 3점짜리 또는 4점짜리 1분항을 틀린 학생은 모두 2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리 가 영역 1등급 비율은 표준 비율(4.16%)에 거의 들어맞았으나 2등급 비율이 표준 비율(7%)을 3%포인트 이상 벗어난 10.08%에 달해 2등급을 받은 자에게 수험생들의 진로 선택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리 가 영역 3등급 비율은 9.55%로 표준 비율(12%)에 비해 2% 이상 벗어났다. 수리 가 2등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오히려 3등급 비율이 2등급 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은 난

/연합뉴스

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공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만점을 받거나 2점

문항 1개를 블린 학생이 1등급을 받았으면 이중 거의 대다수가 만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수능 등급 외에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공개하라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요구도 빠르게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등급제 취지에 비춰 원점수나 구분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을 제외한 중상위권 이상 수험생들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시립국악단 금품채용 의혹

홈피에 글 올린 2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7일 ‘시립국악 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이모(34)씨와 이씨의 조카(1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광산구 소동 한 PC방에서 시청·문화예술 회관·도 방송사·모 신문사 홈페이지에 ‘시립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현금 1천만~2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이씨의 조카는 지난 2일 충남 공주와 한 PC방에서 동일한 내용의 글을 작성해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등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현직 단원의 친인척인 이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는 PC방을 골라 금품 채용 의혹 글을 작성한 뒤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